

제 3 강 : 성령에 사로잡힌 지도자

- 사도 바울과 그의 멘토들

참된 지도자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일을 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상 지도자와 다른 점입니다. 인간적인 지도력은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다릅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인간적인 지도력의 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비참함과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고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이나 꿈을 이루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하거나 생각을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한 메시지의 전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눈물과 안타까움과 포기할 수 없는 불타는 열정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아니었지만 가장 뛰어난 영적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사도 바울의 지도력

1. 그는 인간적인 모든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히브리인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학자인 가말리아의 문하생이었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해서도 남다른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여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2.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다메섹을 향해 가는 도중에 갑자기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자신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극히 작은 자(고전15:9, 엡3:8)라고 했고 만삭되지 못해 난 자(고전15:8)라고도 했고 죄인 중에 죄수(딤후1:15)라고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고후11:1) 요, 가장 약한 자(고전9:22)라고 했습니다.

3. 그는 고난을 겪은 지도자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낌없이 생명을 바쳤습니다(행20:24).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 택하여 세운 사도(행9:15)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동족의 구원을 위해 몸부림친 사람이기도 합니다(롬9:1-3). 그는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었으며 감옥에도 수없이 들어갔으며(고후11:22-29)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선고도 받았습니다(고후1:8-11).

4. 그는 성령 받은 지도자입니다.

그 자신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성령을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영적 은사들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셋째 하늘도 경험했습니다(고후12:2). 복음의 깨달음은 성령체험과 동일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이라고 할 만큼 복음의 능력이 곧 성령의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그는 복음의 전사입니다.

그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롬1:16).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를 것이라고 했습니다(행 20:24).

또한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땅 끝까지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롬15:28).

2. 사도 바울의 멘토들의 지도력

1.아나니아

사도 바울은 스스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둘째는 그에 게는 잊을 수 없는 멘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멘토는 아나니아와 바나바입니다.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멘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의하여 다메섹으로 끌려갔을 때 그가 만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환상 중에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안수하고 도와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즉시 다메섹에 도착한 사울을 찾아가서 성령께서 지시하신 대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여 주었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로 다시 눈을 뜨게 되고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성령 받은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안수 해 주었던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어떻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겠습니까? 그후에도 아나니아는 모든 사람이 사울을 오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앞장서서 사울을 변호해 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2.바나바

또 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행 11:24). 그는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인물로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회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양육하고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행11:26) 그는 사람을 볼 줄 알고 키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를 변명해 주고 보호해 준 사람입니다(행 9:27). 그는 개인적으로 바울의 멘토가 되어 그와 함께 안디옥 목회도 함께 했고 일차전도 여행도 했

습니다. 그는 밀착 양육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멘토 리더십의 표본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멘토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멘토 리더십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키우고 함께 일하는 지도력입니다.

3. 우리가 따라야 할 지도력

1. 자기를 포기하는 지도력입니다.

참된 지도력은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포기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자기를 포기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2.성령에 사로잡히는 지도력입니다.

자신의 힘에 의해 살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의 힘에 의해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은사가 흘러 넘칩니다. 그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고 비전과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3.멘토십을 가진 지도력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키우는 사람입니다. 독주하는 리더십이 있고 남을 섬기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멘토십을 가진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면서도 끊임 없이 한 사람을 키우고 제자를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일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사람입니다.